

총동문의 밤 개최 금산사 화엄불교대학

백제불교의 맥을 이으며 지성불교,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지역의 불교인재를 21년째 배출해 온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이근재)는 구랍 18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홀에서 총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지역의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백호 전라북도 신도회장, 김희수 전북도의장, 송하진 전주시장, 화엄불교대학 동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께서 성도 후 500리 길을 걸어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만나 전법한 사실은 위대한 사건이었다"며 "불법이 세간을 떠나서는 안 되며 불법을 전래하고 포교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 세계관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팔죽나누기 행사 송구영신 한마음

전북 원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구랍 19일 전주 시내 중심가인 전주객사와 코아호텔 앞에서 '동지맞이 팔죽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동지팔죽나누기 행사는 송광사 신도회가 지역 경로당과 전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동지팔죽을 통해 지난해의 액운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담긴 3000명 분의 팔죽을 준비했다.

도영 스님은 "탐진치 삼복을 떨쳐버리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로 이웃과 팔죽을 나누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수행 포교공덕 대중에 회향”

광주전남 포교사단 19일, 단장 이·취임 및 포교사의 밤 개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포교사들의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이하 광주전남포교사단)은 구랍 19일 광주불교회관 법당에서 '단장 이·취임식 및 2009 포교사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 포교부장 조성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자황 스님(해남 광보사 주지), 포교사단 강호원 중앙단장을 비롯해 정영균 신임단장과 150여 포교사와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불교의식에 이어 지난 10여 년간의 포교사들의 활동 경과보고와 우수 회원·팀에 대한 포교원의 표창수여, 단기전날, 이임사(백남용 단장), 공로패 수여, 신임 단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취임사(정영균 단장), 격려사에 이어 광주전남포교사단 회원들의 축하공연과 송년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강호원 중앙단장(가운데)이 정영균 신임단장(오른쪽)에게 포교사단기를 건네주는 모습.

2009년 한 해 동안 포교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은 활동을 한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에서 임재중 포교사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총재상은 장재영, 중앙단장상은 김병중, 지역 단장상은 조왕훈·강경자 포교사,

군중교구상은 김경석 포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지난 2년간 광주전남포교사단을 이끌었던 백남용 단장은 이임사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수행과 포교를 하는 것은 큰 어

려움이 많다"며, "지금껏 묵묵히 전법의 사명을 실천해 주신 여러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수행과 포교의 공덕을 여러 대중에게 회향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제6대 단장에 취임한 정영균 단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여생을 여러 대중들과 포교사단을 위해 봉사하며, 불법을 실천하는데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취임식에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포교사단의 활동이 슬라이드를 통해 상영됐다.

이어 진행된 공연에는 재능 있는 단원들의 아코디언, 거문고, 살풀이춤, 찬불가 공연이 이어져 참여한 포교사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요양보호사 자부심 'UP'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어울림 마당 개최



제2회 요양보호사 어울림마당'에서 무공 스님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구랍 22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복지관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배출한 요양보호사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2회 요양보호사 어울림 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창지역 노인복지의 최일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요양보호사 간의 정보공유와 정서적 지지체계 확립을 위한 자조모임을 위한 자리였다.

관장 무공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요양보호사의 미래'를 주제로 요양보호사 전문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요양보호사 한 마을 대회가 열려 행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의 노래 및 장기 자랑이 이어져 즐거운 화합의 시간이 연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함께 진행된 요

양보호사 체험 수기공모전에서는 고창군노인복지센터의 노소희씨, 고창군노인복지센터의 김경희·장국옥·김화자씨, 크로버실버빌 수교모요양 시설 정은영씨 등 5명이 선정돼 표창장과 선물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체험 수기 수상작은 이날 행사장에 비치되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몸소 느꼈던 기쁨과 감동을 행사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은 "고창지역 노인복지의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거룩한 불교인이 되도록...”

현공 윤주일 선생 열반 40주기 기념학술대회

재가불자로서 호남불교의 대중화에 큰 업적을 남긴 현공 윤주일 선생에 대한 추모제 미사가 열렸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소장 이종표)는 구랍 18일 현림회(현공 윤주일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이순규)와 같이 '현공 윤주일 선생 열반 40주기 기념학술대회'를 전남대학교 인문대 강당에서 개최했다.

'현공 윤주일 선생의 삶과 불교사상'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현공 윤주일 선생의 제자들과 암도 스님(前 포교원장),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현공 윤주일 선생에 대한 전 시회와 '내가 본 현공 윤주일 선생' (이순규 서남대 의과대학 교수), '현공 윤



현공 윤주일 선생 열반 40주기 기념학술대회에서 이순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일 선생과 호남불교' (이종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현공 윤주일 선생의 불교사상' (조준호 전남대 철학과 교수)이 발표됐다.

현공 윤주일 선생은 일제치하와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담하고 자 조선불교청년회와 조선불교유신회 창립에 나서, 호남민들을 위한 불교화생회 결성에 기여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국립대학에 불교철학을 개설해 수많은 불교학자를 양성했다. 저서로는 <대중불교 입문교과서> <불교강연집> <불교대사전> 등이 있다. 이순규 회장은 "현공 선생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불교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사랑 나누는 음성공양

원각사 6번째 작은 음악회 개최

빛고을 광주의 도심 속 포교당 원각사(주지 현고)는 구랍 24일 성탄절이 맞아 '제6회 자비와 사랑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채규옥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원각사 어린이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 원불교 합창단의 '캐롤 및 찬불가', 원각사합창단의 '겨울가곡' 등으로 크리스마스이브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어 원각사 부주지 도요 스님의 인사말, 그름사운드 카운카크의 '추억의 7080', 국악인 김창규, 김미연의 '국악한마당', 사회자 채규옥의 '흥겨운 대중가요',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외국인 무대', 정광아 등 4인의 '부채춤' 등 한국전통무용으로 이어졌다.

행사의 마지막은 광주의 제일 가는 가객 정용주의 '모두 하나 되는 무대' 공연으로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도요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종교인들의 사명"이라며 "원각사의 음악회가 모두를 상생케 하는 작은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각사에서는 2004년 '제1회 자비와 사랑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매년 12월 24일 밤 아기 예수탄생을 축하하는 음악회를 열어 종교간 화합과 교류를 다지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김창규 기획국장은 "일반인을 위한 포교 방법으로 문화적인 접근은, 종교를 떠나 모든 시민들에게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종교적 편향 문제가 되는 요즈음, 이러한 행사를 통해 종교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계을 지켜 불자다운 삶 발원

정광학원 대승원 법당서 수계 법회 봉행

종립 정광학원(이사장 정자)은 구랍 21일 대승원 법당에서 정광중·고교 학생 210명과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명종으로 시작된 수계식은 불교의식에 이어 청성, 청사, 계도, 참회, 연비, 선계상, 계정수여, 발원으로 진행되었다.

첫 수계법회에 참여한 어린 학생들은 삼귀의에 이어 수계를 수지 받고 연비대신 단주를 손에 찘다. 같이 동참한 교직원과 학부모는 연비를 했다.

평소 다른 아이들과 떠들고 장난친 학생들이지만 이날은 계사 스님의 법문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계식의



구랍 21일 정광학원 수계식에서 정광 스님이 계을 살하는 모습.

경건함을 잘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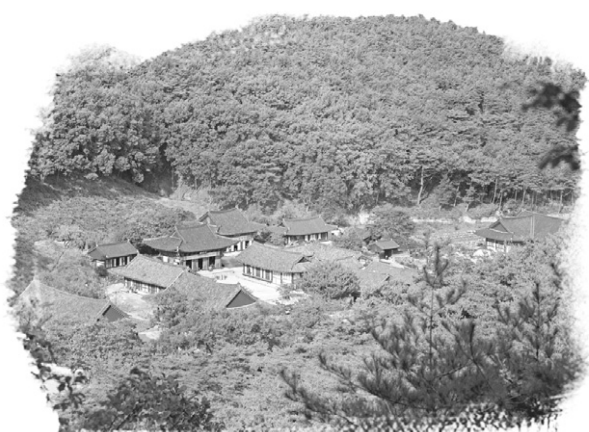
정자 스님은 수계의 의미를 살려서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 부처님의 삶처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학 장 덕 민
선원장 중 우
부주지 장 주
총 무 중 천
기 획 정 문
교 무 정 수
사 회 각 천
포 교 성 요
호 법 중 민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성림원 (불국사부설 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사유치원
- 성림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조 실 지 유 대종사
주 지 정 여

박물관장 경 선	선 원 장 인 각	강 주 용 학
총무국장 도 관	교무국장 승 련	재무국장 정 현
사회국장 법 귀	포교국장 일 광	호법국장 돈 각
연수국장 도 명	원 주 정 오	도 감 도우, 효원
신도회장 이윤희		



범어사에는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사북) 범어사 · (재)범어청소년동네 TEL 508-8822 성보박물관 TEL 508-6139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총무소 TEL 508-3122~5 원주실 508-3636 범어사 템플스테이 508-5726

범어사불교대학 불교회관 4층 TEL 866-7277